

환경윤리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생명중심주의에서 생명주권주의으로 -

이 종 원 (송실대)

주제분류 윤리학 환경윤리

주요어 인간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명주권주의, 도구적 가치, 목적적 가치, 내재적 가치, 평등주의, 하나님의 형상, 창지기

요약문

이 논문은 생태계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세계관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생명중심주의에서 생명주권주의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슈바이처의 생명경외사상과 테일러의 생명중심사상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망을 제공한다. 이러한 생명중심적 전망은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운명공동체로 이해하는 공생적 생명관을 갖는다. 생명중심주의는 생태계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무생물적인 자연환경과 호혜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주목하는데, 이러한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게 될 때 환경위기를 극복할 궁극적인 전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생명중심주의는 존재의 선과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말미암아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하여 보다 본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때 창조자와 창조질서의 온전함을 깨닫게 되며, 생태회복을 위한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필자는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생명주권과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성 그리고 책임의 측면에서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생명주권주의를 주장한다. 이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어왔던 창조신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수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이해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생명주권주의는 창조주와 인간의 올바른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환경의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I. 들어가는 말

본 소고는 전 인류와 생태계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세계관이 무엇인지 고찰하는데 있다. 우리가 어떤 전망 내지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판단과 행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태계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 바닷물의 온도상승, 이상기후, 토지의 사막화 등의 자연재난들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구의 생태환경을 극도로 열악하게 만든 결과들이다. 공장폐수, 산업쓰레기, 핵폐기물로 인한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는 우리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생태계의 오염과 환경파괴를 가져온 근본적인 세계관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부인하고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며,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조종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세계관이다.¹⁾ 이로 인하여 자연을 인간중심적으로 해석하여 자연환경을 인간의 유익만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착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세계관은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생명중심주의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살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면서 생명경외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테일러는 자연 존중의 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는 생명이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근거로서 존재의 선과 가치개념을 분석하면서 모든 생명 속에서 목적론적 중심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강

1) 김균진, “양자물리학의 세계관의 생태신학적, 사회-정치적 의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40, 2005, 163쪽, 참고

조하였다. 이러한 슈바이처와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는 생명의 내재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생명존중의 태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가치관의 귀중한 자원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에 대하여 보다 본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생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전망을 갖게 되며, 창조주와 창조질서의 온전함을 깨닫게 되며, 생태회복을 위한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주목하면서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인간중심주의

1.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의 기원

린 화이트(Lynn White Jr)는 “환경위기의 역사적 기원(*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에서 생태환경위기는 과학과 기술의 면에서 뿐 아니라 그 위기의 근저에 인간의 자연관, 즉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종교적 깊이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서양 현대 사상의 기조인 진보사상과 그 근원인 기독교사상이 생태위기의 역사적 근원이 라고 주장하였다.²⁾ 화이트는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근원이 중세

2) 화이트는 2세기의 터툴리안과 이레나이우스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둘째 아담인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이미지의 전조가 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엄청나게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기독교는 고대 이방종교와 아시아의 종교들과는 달리,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이 그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R. G. Botzler & S. J. Armstrong, *Environmental Ethics*, (McGraw-Hill, 1998), 207쪽. 이같은 화이트의 주장은 환경학자들 뿐 아니라 철학계와 종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야기시켰다.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낸 위기의 근원은 중세의 기독교적 진보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³⁾ 화이트의 해석에 따르면, 환경위기의 근본원인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진보사상에 기인하며, 기독교의 창조신앙이 그 원인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기독교는 반생태학적 종교가 되며, 오늘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대신에 다른 종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⁴⁾ 그러나 환경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질서를 왜곡되게 해석한 인간중심적 세계관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⁵⁾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기원은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 본래 자연은 인간과 서로 공존하며 상생하는 관계였는데,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선 것으로 간주하여 자연을 착취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사상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에 이르러 체계화되었고,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진보사상과 맞물려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베이컨은 인간의 이용에 맞도록 자연을 변화시키는 과학적 방법을 권장했는데, 자연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료이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지배의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가공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자기의 힘과 지배권을 확대

3) 김철영, “환경개발에 대한 기독교 생명문화의 대안”, 김영한 외, 『21세기 생명문화와 기독교』 (서울: 콤파스출판사, 200), 160쪽.

4) 패스모어는 화이트와는 달리 인간중심주의 사상의 보다 근원적인 뿌리를 헬라의 그리스 사상에서 찾고 있다. 세계는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스토아철학의 가르침이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J. A. Palmer ed, *Fifty Key Thinkers on the Environment*, (NewYork: Routledge, 2001), 218쪽.

5) 조용훈은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인간중심적이지도 않으며, 자연파괴적이지도 않다고 보면서 인간중심주의적 자연이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구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전통에서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의 환경위기에 대한 간접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용훈, “환경윤리의 창조신학적 기초”, 『기독교사회윤리』 3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0. 93쪽.

시킬 수 있고,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사고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존재(*res cogitans*)이며 정신이다. 반면 물질은 연장되는 존재(*res extensa*)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이 사유에 있고, 사유가 그의 존재를 보장하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은 대상화된다. 그 결과 자연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그 전체가 상호작용하는 힘들로 구성된 하나의 정교한 기계장치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기적인 자연관은 기계주의적인 자연관으로 대체되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인간을 자연의 주인과 지배자로 보는 인간중심주의와 연결되어 근대인들의 자연지배와 약탈을 정당화시켜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는 현대인들의 자연관과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과학기술의 진보와 맞물려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 환경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2.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의 문제점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세계관은 인간만이 자율적이고 주체성을 가진 동물이고, 그 밖의 모든 존재는 인과적으로 작동하는 타율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⁷⁾ 오직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만을 유익한 것으로 여긴다.⁸⁾ 그리하여 자연 대상에 대해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intrinsic value*)를 갖는다고 보

6)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베이컨만큼 시대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17세기는 존중받고, 따르려는 모델이 되었고, 18세기는 계명주의의 선구자로 높이 받았지만, 19세기에는 그의 가면을 벗기는 노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진정한 과학의 적으로, 사기꾼으로 심지어는 사탄으로까지 묘사되고 있다. J. A. Palmer ed, *Fifty Key Thinkers on the Environment*, 39쪽.

7) 이종원, “책임적 생명윤리”, 『철학탐구』 18집, 중앙철학연구소, 193쪽.

8) B. Mackinon, *Ethics*, (Belmont: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1), 358쪽.

기 보다는 외재적이고 도구적인 가치(*instrumental value*)만을 갖는다고 본다. 즉, 자연이 그 자체로서 목적가치를 갖기 보다는 단지 인간의 생존이나 복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만을 갖는다고 본다.⁹⁾ 인간생명이 자연에 대하여 우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오직 인간만이 존중의 대상이며,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갖기에, 인간은 자연을 무차별하게 정복하고 통제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근거가 성립된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도덕 평가의 기준은 인간의 이해관심이나 인간의 좋음에만 의존해 있다. 비록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다른 생명체들이 희생되더라도 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인간의 가치평가에 좋다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세계관이야말로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자신만의 번영을 위해 자연을 무차별하게 착취한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¹⁰⁾

따라서 우리는 현 인류와 생태계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 인간중심적 가치관 보다는 생명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면서 폭넓은 전망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다른 생명체들의 가치를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각은 슈바이처의 생명에의 경외로부터 시작된다.

III. 슈바이처의 생명에의 경외사상

생명중심주의는 슈바이처의 생명경외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살려는 의지(*will-to-live*)”를 가진 내재적으

9) 이종원, “책임적 생명윤리”, 194쪽.

10) 박이문, 『환경철학』, 126-127쪽 참고.

로 가치있는 존재로 보았다. 이것이 생명에의 경외사상의 핵심이다.¹¹⁾

슈바이처에 따르면, 현대 산업사회는 생명의 선과 자연의 선을 연결해주는 세계관으로부터 이탈해 왔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산업사회는 자연을 무관심하고, 몰가치적인, 기계적인 힘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연과 윤리를 분리시켰다.¹²⁾ 그는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과 자연의 유대를 생명에의 경외사상으로 재확립하려고 하였다. 그는 자연 안에는 선이, 내재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바로 이것이 윤리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¹³⁾

모든 생명체들이 신성하고 독립적이라는 자각은 그들 생명체 속에 내재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심오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생명 속에 존재하는 내재적 가치의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의 경외감을 일으키는 강한 동기가 된다.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외경의 방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생명을 유지, 촉진하는 것은 선이고, 반대로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불가피성이나 필연성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둘째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한 생명의 존재는 다른 생명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생명에 대한 훼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기에 더 더욱 생명을 경솔하게 혹은 무의미하게 죽이거나 해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셋째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 필연적이며 불가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에 대한

11) A. Schweitzer, "Reverence for Life", L. P. Pojman, *Environmental Ethics*, (wadsworth, 2001), 95쪽. 슈바이처의 생명개념은 살려는 의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는 생명 속에서 인간 의식의 존재적 사실을 찾아내어 생명과 생명의지 그 자체를 생명의 주체와 동일시했다. 변순용, "생명에 대한 책임-슈바이처와 요나스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32집』, 2004년 봄, 범한철학회, 6쪽.

12) J.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김명식, 『환경윤리의 이론과 전망』, 서울: 자작아카데미 2002), 203쪽.

13) 상계서, 204쪽.

자각이 바로 슈바이처 윤리학의 핵심이다.¹⁴⁾

나는 살려고 의지하는 생명이며 살려고 의지하는 생명의 한 가운데 존재한다. 따라서 생명을 보존하고 소중히 하는 것은 선한 것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¹⁵⁾

그에게 있어서 존재는 궁극적으로 생명이며, 이 존재개념에는 생명의 긍정과 생명의 의지가 본질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생명긍정에 반대되는 생명부정은 자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연에서는 맹목적인 생명의 긍정만이 부여된다.¹⁶⁾ 따라서 생명을 보존시키고 생명의 가치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들은 선한 행위들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의지를 가질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생존에의 의지는 다른 생명체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생명에 대한 경외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최상의 동기이며, 우리로 하여금 책임의 위치에 서게 만든다.¹⁷⁾ 생명경외

14) 변순용, “생명에 대한 책임-슈바이처와 요나스를 중심으로”, 13쪽.

15) A. Schweitzer, “Reverence for Life”, 95쪽.

16) 변순용, “생명에 대한 책임-슈바이처와 요나스를 중심으로”, 8쪽.

17) A. Schweitzer, “Reverence for Life”, 99쪽.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생명경외의 세 가지 책임 원칙을 제시한다. 동등성, 차등성, 사랑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생명의 동등성 원칙은 모든 생명체는 생명에의 의지 혹은 생명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본능적 힘을 가진 존재이며 그런 면에서 모든 생명체는 존중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생명의 차등성 원칙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자연의 현실은 이런 동등성을 포기하게 만든다. 생명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차등성의 원칙은 현실적인 필연성으로 제기된다. 셋째, 생명의 동등성의 원칙과 차등성의 원칙을 보완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사랑의 원칙이다. 슈바이처에게 있어서 사랑은 함께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며, 노력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사랑의 원칙이 동등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다른 존재의 동등성의 인정으로, 차등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희생의 전제로 기여한다. 생명의 외경은 인간이 인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가져야 할 본질적인 것이다. 변순용, “생명에 대한 책임-슈바이처와 요나스를 중심으로”, 16-18쪽.

는 우리에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 주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슈바이처의 윤리적 관심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규칙, 원리)가 아니라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태도)”라는 행위자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즉 행위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성품과 성향의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었다.¹⁸⁾ 따라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인격적 태도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각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생명을 함부로, 아무런 느낌없이, 별다른 연민없이 해치는 잘못을 막아 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명경외의 태도를 통해 진실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슈바이처는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생명의 의지를 다른 생명체에까지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인간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생명체들도 소중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것은 선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슈바이처의 생명의 경외사상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린 인간중심주의적 가치관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경고하면서, 각각의 생명체 속에서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경외의 윤리는 행위의 측면에서 개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도덕 원칙으로 정식화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단지 현재의 인격을 나타내주는 태도로만 머문다는 점에서 슈바이처의 생명경외사상은 너무 낭만적이고 소박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슈바이처의 한계점은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적 세계관에 의해서 극복된다.

18) J.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208쪽.

IV.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

테일러는 슈바이처의 생명에의 경외사상으로부터 생명중심적인 윤리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시도하면서 왜 자연존중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논증한다.

테일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의 여부, 그리고 성품의 도덕성 여부는 자연존중이라는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를 얼마나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¹⁹⁾ 생명이 존중받아야하는 도덕적 근거로서 존재의 선(*the Good of a Being*)과 내재적 가치(*inherent worth*)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생명체들이 갖는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teleological center of life*)인 존재의 선과 가치개념을 *intrinsic value*, *inherent value*, *inherent worth*로 분석²⁰⁾하면서 자연존중의 태도를 갖는 생명중심적 전망의 근거를 논증했다.

테일러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고,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을 갖는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 속에서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을 발견하게 될 때 인간우월주의 내지 인간중심적인 편견을 벗어날 수

19) P. W. Taylor, *Respect for Nature*, 80쪽.

20) *intrinsic value*는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의 사건이나 조건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이다. 이 가치는 그 자체로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치이다. 도구적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inherent value*는 우리의 유용성이나 상업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아름답거나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거나 문화적인 의미가 있기에 갖는 가치이다, *inherent worth*는 다른 존재의 선에 관계없이 그 자체의 선을 갖는 존재에게 귀속되는 가치이다. P. W. Taylor, *Respect for Nature*, 73-75쪽. 이렇게 볼 때, *intrinsic value*는 내용상 도구적 가치이며, *inherent value*는 인간의 가치평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목적적 가치이며, *inherent worth*는 인간의 가치평가와는 독립된 객관적 가치라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테일러의 가치개념을 따르지 않고 데자르탱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J.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197-202쪽 참고.

있다는 것이다.

1.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 - 내재적 가치

일반적으로 가치는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 그리고 내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²¹⁾

1) 도구적 가치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는 자연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볼 때 형성된다. 도구적 가치의 척도는 유용성에 있다. 도구적 가치는 외재적이며, 다른 가치있는 것을 획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갖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도구적 가치는 공리적, 경제적 근거에서 제시된다.²²⁾ 자연의 도구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적 관점이 빛은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 동식물들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의 행위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르다고 판단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복지에 호의적인지 (*favorable*) 호의적이지 않는 것인지의 결과에 따라서이고, 둘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행하는 규범 체계와 상충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

21) 환경윤리에서 가치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제시되었다. 아르네 네스(Arne Naess)는 인간과 인간 이외 존재인 지구생명의 생존과 번성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이런 가치는 인간의 목적에 맞도록 세계를 사용하는 것에 독립해 있다고 보았다. W. Fox는 생명계의 모든 구성원들은 평등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했고, 롤스톤은 적합한 생태학적 윤리는 자연에서 ' 좋음', '가치'를 발견하는데 의존한다고 보았다. 캘리콧은 내재적 가치와 고유한 가치를 구분하면서,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는 자연적 존재나 그 과정의 가치가 객관적이고 평가하는 의식에 독립적인 가치이며, 고유한 가치(*inherent value*)는 평가하는 의식에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구적 가치 이외에도 그 자체를 위해 가치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면희, 『환경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33-35쪽.

22) J.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198쪽.

라서 판단된다.²³⁾ 이러한 모든 의무들이 궁극적으로 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만이다. 자연환경을 도구적 가치로 볼 경우, 다른 생명체가 갖는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과 존재 자체의 선을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와 생명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자각하기 위해서는 도구적 가치의 차원을 넘어서서 비도구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2) 목적적 가치²⁴⁾

목적적 가치(*intrinsic value*)는 그 대상이 그 자체로 갖는 가치이다. 어떤 것들은 그것의 상징적, 미학적, 문학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다고 평가된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 또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의해 가치 있다고 평가된다. 가령,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지를 포함하는 문화적 가치, 자연이 갖는 미적 경관의 가치 등이 있다. 미적 가치(*aesthetic value*)나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는 인간 개개인의 이해관심이나 기호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인간의 좋음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목적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²⁵⁾

그런데 도구적 가치든, 목적적 가치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다.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가 충돌할 때, 도구적 가치는 측정가능한 반면, 목적적 가치는 표현되기 힘든 무형의 특질을 지니기 때문에 도구적 가치가 너무 쉽게 승리하곤 한다.²⁶⁾ 목적적 가치 개념의 약점은 자연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간의 가치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⁷⁾

23) P. W. Taylor, "Biocentric Egalitarianism", 101쪽.

24) 데자르맹은 *intrinsic value*를 목적적 가치로, *inherent value*를 내재적 가치로 구분했다. 용어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데자르맹의 분류에 따라, *intrinsic value*를 목적적 가치로 보았다.

25) 한면희, 『환경윤리』, 40쪽.

26) J.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200쪽.

27) 상계서, 202쪽.

목적적 가치는 인간의 이기심이나 유용성을 기준으로 삼는 도구적 가치를 넘어서지만 인간의 가치평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평가와는 독립적인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테일러는 이를 내재적 가치(*inherent worth*)로 제시한다.

3) 내재적 가치²⁸⁾

내재적 가치(*inherent worth*)는 인간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갖는 가치를 의미한다. 가치에 대한 모든 판단은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며 따라서 목적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최소한 몇몇 대상에게 내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소유한다고 보는 다양한 윤리학적 전통이 있다. 가령,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개념들이다.²⁹⁾ 테일러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인격 개념을 야생동물과 식물들에게도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³⁰⁾

따라서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존재가

28) 대부분의 학자들은 “value”를 사용하지만 특이하게 테일러는 내재적 가치를 “inherent value”와 “inherent worth”로 구분하면서 “inherent worth”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모든 개별 생명체에서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P. W. Taylor, *Respect for Nature*, 75쪽.

29) J.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201쪽. 테일러는 인격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의무가 부과되는 도덕 주체로서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때이다. 이는 장점이 적용되어 내재적으로 우월하게 고려되지 않고, 각각의 선이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인격으로서 모두가 동일한 관심과 고려대상으로 평가된다. 2)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3) 만약 모든 인격들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고려된다면, 각 개별자의 선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으로 인정된다. 4) 인격의 선은 도덕 원칙의 문제로 증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P. W. Taylor, *Respect for Nature*, 78-79쪽.

30) 이러한 테일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자연 생태계의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각의 동식물은 도덕 행위자에게 대하여 도덕 주체로서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2) 이들은 결코 인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이들 각각의 선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으로 간주된다. 4) 이것은 도덕 행위자들이 그러한 존재의 선을 고려해야 할 원칙의 문제이다.

도덕적 고려를 받을 만하며, 도덕 행위자는 그 존재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규범적 주장을 하는 것이 된다. 즉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연존중을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로 채택하는 것이며, 자연 환경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¹⁾

테일러에 따르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일반 원칙들을 포함하는데, 도덕적 고려의 원칙과 내재적 가치의 원칙이다. 도덕적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야생의 생물들은 지구 생명공동체의 일원이기에 모든 도덕 행위자들의 관심과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선은 합리적 행위자들의 행위에 의해서 더 나은 방향이든 더 나쁜 방향이든 어느 쪽으로 영향을 받든지 간에 고려되어야 한다. 도덕적 고려의 원칙은 각 존재와 연관하여 그 자체의 선을 갖는 존재로서 각 개별자들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제된다.

내재적 가치의 원칙은 만약 어떤 존재가 지구의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그것의 선의 실현은 내재적으로 가치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 선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보존되고 증진시키는 즉견적 의무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유기체, 종 또는 생명공동체를 내재적 가치를 지닌 실재로 간주하는 한, 우리는 그것의 가치가 어떤 다른 사물의 선에 대한 도구로 놓여지게 되어 단순한 대상이나 사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의 선이 모든 도덕적 행위자의 관심과 고려의 대상이 되며, 그 선의 실현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이며 그러한 선을 갖는 실재를 위하여 그 자체 목적으로서 추구되는 것을 말한다.

31) J.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211쪽. 테일러는 인간은 지구 생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야생의 동식물에 빚지고 있다는 점에서 즉견적인 도덕적 의무 (*prima facie moral obligation*)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그들의 선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를 지닌다. 인간의 의무는 자연 생태계의 온전성을 존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그들의 내재적 가치(*inherent worth*)에 기인한다. 인간의 복지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복지는 목적 그 자체로서 실현되어야 한다. P. W. Taylor, "Biocentric Egalitarianism", 101쪽.

2. 자연에 대한 생명중심적 전망

테일러는 자연에 대해서 자연존중의 태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자연에 대해 갖는 어떤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를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면서, 생명중심적 체계의 기초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³²⁾ 우리가 자연에 대한 궁극적 태도인 자연존중의 태도를 갖게 될 때 지구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생명체들을 볼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보아야 한다.³³⁾ 왜냐하면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동등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의 태도와 더불어 생명중심적 전망(*biocentric outlook*)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자연에 대한 생명중심적 전망은 다음의 내용으로 요약된다.³⁴⁾

- 1)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똑같은 이유에서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이다.
- 2) 전체로서 지구의 자연 생태계는 상호연결된 요소들의 복합적 그물 조직이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종은 상호의존체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 3) 모든 생명체는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면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갖는다.
- 4) 우리가 장점의 기준에 관심을 갖든 내재적 존엄의 개념에 관심을 갖든 간에, 그들의 바로 그 본성에 의해서 인간은 다른 종들에 우월하다고 하는 주장은 위의 세 가지 요소들에서 볼 때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우리 자신의 호의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은 지구 생명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존재이다. 지구 생명계의 자연 질서는 유기적으로

32) 그는 자연존중태도의 기본 성격은 우리가 자연을 도덕적 관심과 고려의 타당한 대상으로 평가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본다.

33) P. W. Taylor, "Biocentric Egalitarianism", 100쪽. 이러한 테일러의 입장은 생명중심적 평등주의이며, 개체중심적 환경윤리로 평가된다.

34) 상계서, 104-105쪽.

상호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성은 서로 역동적이면서도 전체의 생태균형을 유지하는 자기규제적이고 에너지가 순환되는 메커니즘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지구의 전체 생명계의 온전성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 모두의 지속적인 생명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 각각의 생명체들은 그들의 생존(*preservation*)과 복지를 향하여 방향지워졌으며, 목표에서 기인된 행위들(*goal-oriented activities*)의 단일화 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이라 할 수 있다.³⁵⁾

따라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동등하게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기에 어떤 종도 다른 종들보다 “높거나” “낮은” 종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동등하게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의 선을 각각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종이 다른 생명체보다 내재적인 가치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없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호의에 입각한 비합리적인 편견의 표현일 뿐이다.³⁶⁾

3. 테일러에 대한 평가

테일러는 생명중심적 전망으로 생물학적 좋음을 갖는 생명체를 볼 때 생명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이를 통해서 생명체가 해를 입거나 방해받아서 안된다는 원리를 도덕규범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³⁷⁾ 슈바이처의 생명에의 경외사상이 태도의 차원에서 머문 반면, 테일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자연존중의 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가를 논증하면서 생명중심적 전망에 기초한 행위의 규칙과 원리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5) 상계서, 107쪽.

36) 상계서, 109쪽. 테일러는 내재적 가치에서 인간이 우월하다는 주장은 고전그리스 인문주의, 데카르트적인 이원론, 유대-기독교 사상에서 기원한다고 보았다.

37) P. W. Taylor, *Respect for Nature*, (Princeton Univ. Press, 1986), 72쪽.

테일러가 제시하는 자연존중의 윤리는 세 가지의 기본요소로 구성된다. 신념체계,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 의무의 규칙과 성격의 기준이다. 이 요소들은 자연존중의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를 중심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자연존중의 태도 저변에 흐르는 신념체계를 자연에 대한 생명중심적 전망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신념 체계는 자발적인 도덕 행위자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궁극적인 존중의 태도를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특정한 전망을 제공한다. 우리가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로서 자연존중의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어떤 규범적인 원리에 의해 살아가는데 헌신하게 된다. 이 원리들은 인간의 행위 규칙과 성격의 기준을 구성하게 된다.³⁸⁾

그러나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갈등구조로 해석하면서 우선성의 원칙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인간과 자연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안에 살며, 자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또한 인간은 자연이 베푸는 혜택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³⁹⁾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은 자연생태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인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독특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테일러는 이 점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테일러는 인간이 자연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연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⁴⁰⁾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은 본래의 가치면에서는 동등

38) 자연존중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더 높은 규범으로부터 파생되지 않기에 궁극적 헌신이다. 자연존중의 태도는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 책임의 완전한 틀을 구성한다. 둘째, 헌신은 원리의 공평무사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도덕적이다. 따라서 존중의 태도는 감정이나 성향의 결합과는 구분된다. 상계서, 103쪽.

39) 조용훈, “환경윤리의 창조신학적 기초”, 105쪽.

40) 테자르맹은 다음 두 가지로 테일러를 비판한다. 첫째, 테일러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불간섭을 강조하는데,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인간을 자연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결국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둘째, 테일러는 유독 개별 생명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인다는데 한계가 있다. 개체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

하게 고려되어야 할지 모르나 동등한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굿 패스터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도덕적으로 고려될만한 것을 소유하지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는 첫째로 도덕적 권리(rights)와 도덕적 고려(considerability) 사이를 구분하고, 둘째로 도덕적 고려와 도덕적 중요성을 구분하면서 인간이외의 존재들은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는 못하지만 도덕적 행위자가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 타당한 도덕적 주체(moral subject, patients)는 될 수 있다고 보았다.⁴¹⁾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이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고려되면서도 동시에 생명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독특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균형잡힌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는 생명주권주의 위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V. 생명주권주의

생명주권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이 자연 보다 우월한 지배자로 군림하기보다는 생명에 대한 청지기임을 강조한다. 여기에 인간이 진정한 도덕 주체로서 생태계의 균형과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독특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진다. 이러한 책임의 기초는 생명과 온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문에 생태계나 무생물, 종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는 ‘탈인간 중심적’이긴 하지만 개체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J.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222-223 쪽.

41) K. Goodpaster, “On Being Morally Considerable” L. P. Pojman, *Environmental Ethics*, (wadsworth, 2001), 112쪽.

1. 생명의 주권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자 지배자로 보면서 과학기술의 힘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지배와 약탈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과 동등한 피조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군림하게 되며, 결국 자신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태환경은 창조주에게 속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 따라서 창조 세계 안에는 그의 신성과 온전함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창조신앙의 올바른 해석은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중심적인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⁴²⁾ 즉, 모든 세계와 생태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창조되었으며,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다.

성서적 창조관점에 따르면 자연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며,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가치를 지닌다. 이 점에서 자연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⁴³⁾

베리는 지구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이 의식이 기독교적 삶의 기초이며,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한 대답의 기초라고 보았다. 베리는 펼쳐지는 창조의 드라마 속에서 인간을 재형성하도록 주장하고 격려한다. 산업사회와 편협한 세계관이 우리에게 강요한 좁은 감수성의 틀에서 벗어나 우주와의 친교 속으로 다시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⁴⁴⁾

42) 인간에게 주어진 청기직에 대한 강조는 창조성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오용되기 쉬우며, 실제로 오용되어 왔다. R. H. Preston, 강성두, 『기독교윤리의 미래』, 한울출판사, 2005, 136쪽.

43) 상계서, 100쪽 참고.

44) N. G. Wright and D. Kill, *Ecological Healing A Christian Vision*, (박경미, 『생태학적 치유, 기독교적 전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141쪽.

인간은 지구와 다시 접촉함으로써 자연 세계의 거룩함과 지속적인 창조과정 안에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고 생명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지탱자이다. 성서는 창조는 영원하고 끝이 없으며, 창조자와 피조물이 평화와 사랑 안에서 결속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창조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은 자연과 생태계의 모든 요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피조물, 모든 종류의 식물과 동물의 생명이 지니는 의미와 존엄성을 인정하게 된다.⁴⁵⁾ 그리하여 미래까지 계속되는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고 참된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생명의 주권이 창조주에게 있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는 단순히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 그 자체가 존엄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척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생명주권주의에 기초한 생명중중은 생명 그 자체의 목적론적 중심에 주목하는 생명중심주의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모든 생명들은 창조주에 의해 선한 의도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창조로 인하여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 하나님의 형상

성서는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인간만이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⁴⁶⁾ 전통적으로 하

45) 상계서, 105쪽. 이정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동적 관계개념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반복하여 축복하는 행위에 상응하도록 인간을 그 일로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 행위가 이제 인간과 자연과의 사귄에 있어서 역동적인 책임적 행위를 각성시키는데, 이런 의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정당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배, 『생태학과 신학』, 서울: 종로서적, 1989, 8-9쪽.

46) N. Agar, *Life's Intrinsic Valu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14쪽.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우월성은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정당화시켰다. 즉, 인간중심적인 해석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약탈하여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연을 착취하고 약탈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론적인 의미 보다는 관계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유형으로 해석할 때,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강조된다.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인 창조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모든 피조세계에 펼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⁴⁷⁾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인간에게는 파괴되고 왜곡된 생태질서의 회복을 특별한 책임이 부과된다.⁴⁸⁾ 이러한 책임은 생태공동체의 온전성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책임적 존재이며,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창조세계에 대한 창조자의 보살핌을 반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⁴⁹⁾ 따라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민감하고 더 창조적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책임이 부여된다.

3. 선한 청지기의 사명

에트필드는 새로운 환경윤리의 필요에 대하여 유대-기독교의 전통적

47) 조용훈, “환경윤리의 창조신학적 기초”, 106-107쪽.

48)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와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1) 하나님과 하나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2)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의 사랑을 받으며 (3)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인간의 책임성에 있다.

49) N. G. Wright and D. Kill, *Ecological Healing A Christian Vision*, 112쪽.

교리인 청지기 사상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원임을 제시하면서 인간은 책임있는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⁵⁰⁾ 인간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연과 생태계의 생명체들을 보존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윌킨슨은 인간은 선한 청지기로서 자연 속에 평화를 세우고 자연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자연과 더불어 사귀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청지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책임성과 자연 안에 묻혀 있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청지기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청지기직은 공동의 집단적 책임이며, 하나님과 창조 세계, 인간과 지구 사이에 조화를 다시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였다.⁵¹⁾

슈바이커는 책임을 도덕적 통전성(integrity)이라는 가치개념으로 설정하면서 책임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시대의 힘과 책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책임의 영역은 생태계와 미래세대 뿐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²⁾ 슈바이커가 제시하는 책임의 명법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명제에 충실한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통전성을 존중하고 함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⁵³⁾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통전성과 관련되며, 생명의 부여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존중의 과제와 상응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 앞에 설 때, 우리가 탐욕적인 소비자(greedy consumer)가 될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신중한 보존자(careful

50) Robin Attfield,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구승희, 『환경윤리학의 제문제』, 서울: 따님, 1997), 107-108쪽.

51) N. G. Wright and D. Kill, *Ecological Healing A Christian Vision*, 151-153쪽. 그는 청지기가 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며,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지기나 종으로서 섬기는 피조물들의 성질과 필요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2) 이종원, “책임적 생명윤리”, 204-205쪽.

53) W. Schweiker, *Responsibility and Christian Ethics*, 33쪽.

preserver)인가⁵⁴⁾에 대한 답변은 자명하다.

이로 볼 때 생명주권주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인간이 저야 할 책임의 지평을 열어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선한 창지기로서 창조의 선한 뜻에 부합하도록 생명공동체를 보다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자각은 생태위기해결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된다.

VI. 나오는 말

위에서 현재 인류가 경험하는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중심주의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슈바이처와 테일러를 중심으로 생명중심주의를 살펴 보았다. 생명중심적 전망은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운명공동체로 이해하는 공생적 생명관을 갖는다. 생명중심주의는 생태계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또는 무생물적인 자연환경과 호혜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생명중심주의는 존재의 선과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의 측면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였다.

필자는 위에서 생명주권주의가 생명주권과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성 그리고 책임의 측면에서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인간중심주의로 해석되어왔던 창조신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수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이 해와 자연이해, 그리고 거기서 도출되는 인간의 책임을 재발견하게 된다. 생명주권주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생명체와 관계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생명주권주의에 기초한 생명이해는 생명은 서로 의존하는 상

54) N. Agar, *Life's Intrinsic Value*, 39쪽 참고.

생과 공생의 관계에 있음을 주목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을 돌보아야 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위임받았음을 강조한다. 인간은 자연 생태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때, 자연 생태계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서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자연 생태계를 사랑하고 돌보며 가꾸어야 한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도 자연에 속하며, 자연의 일부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창조성과 지혜를 가지고 자연을 지배, 통제, 그리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 상호 존중, 그리고 협동의 구도 속에서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 김균진, “양자물리학의 세계관의 생태신학적, 사회-정치적 의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40, 2005.
- 김철영, “환경개발에 대한 기독교 생명문화의 대안”, 김영한 외, 『21세기 생명문화와 기독교』 (서울: 쿰란출판사, 200)
- 박이문, 『문명의 위기와 문화의 전환』, 서울: 민음사, 1996.
- 이정배, 『생태학과 신학』, 서울: 종로서적, 1989.
- 이종원, “책임적 생명윤리”, 『철학탐구』 18집, 중앙철학연구소,
- 조용훈, “환경윤리의 창조신학적 기초”, 『기독교사회윤리』 3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0.
- 한면희, 『환경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 Agar, N. *Life's Intrinsic Valu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 Attfield, Robin.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구승희, 『환경윤리학의 제문제』, 서울: 따님, 1997.
- DesJardins, J. R. *Environmental Ethics*, (김명식, 『환경윤리의 이론과 전망』, 서울: 자작아카데미 2002).
- Goodpaster, K. “On Being Morally Considerable” L. P. Pojman, *Environmental Ethics*, wadsworth, 2001.
- Mackinon, B. *Ethics*, Belmont: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1.
- Palmer, J. A. ed, *Fifty Key Thinkers on the Environment*, NewYork: Routledge, 2001.
- Preston, R. H. 강성두, 『기독교윤리의 미래』, 한들출판사, 2005.
- Taylor, P. W. *Respect for Nature*, Princeton Univ. Press, 1986.
- _____. “Biocentric Egalitarianism”, L. P. Pojman, *Environmental Ethics*, wadsworth, 2001.
- Schweiker, W. *Responsibility and Christian Ethics*, Cambrige: Cambridge Univ. Press, 1995.

철학탐구 제19집

Schweitzer, A. "Reverence for Life", L. P. Pojman, *Environmental Ethics*, wadsworth, 2001.

White, Lynn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R. G. Botzler & S. J. Armstrong, *Environmental Ethics*, McGraw-Hill, 1998.

Wright N. G. and Kill, D. *Ecological Healing A Christian Vision*, (박경미, 『생태학적 치유, 기독교적 전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K C I

Alternative Approach on Environmental Ethics **- From Biocentrism To Biocracy**

Jong-Won, L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ek solution of our ecological environmental crisis by shifting from biocentrism to biocracy.

At first, we must forsake anthropocentrism. Anthropocentric perspective regards only human needs and interests as valuable. But biocentric perspective identifies oneself as a member of the Earth's Community of Life.

Schweitzer describes his theory of reverence for life - the idea that all of life is a sacred and that we must live accordingly, treating each living being as an inherently valuable "will to live". It is good to maintain and cherish life, but it is evil to destroy and to check life. He stressed that reverence for life is the supreme motive to recover our environmental destruction.

Taylor develops Schweitzer's life-centered system of environmental ethics. He argues that each living individual has a "teleological center of life," which pursues its own good in its own way, and possesses equal inherent worth. He called it the attitude of respect for nature. The attitude of respect for nature is core of the biocentric outlook.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human beings are no more intrinsically valuable than any other living thing but should see themselves as equal members of Earth's community. Taylor advocates a biocentric egalitarianism. As the result, human's role and responsibility was reduced. Because of this point, we need to adapt biocracy.

It is traditionally said that human was created in God's image and only human possessed immortal soul. But biocracy insists on the proper relations between creator and human. And human should be responsible being in

철학탐구 제19집

relation with other living beings. To adapt this perspective, we need a reinterpretation about God's creation and God's image and human's stewardship. Through this revision, we can discover theocentric outlook of life and nature. I think it is the human's responsibility for all living things.

Key Words: anthropocentrism, biocentrism, biocracy, instrumental value, intrinsic value, inherent worth, egalitarianism, image of God, stewardship.

이종원 e-mail : jwlee@ssu.ac.kr

